

㉔ 감격에 벅찬 후손들

성의 종장택 방문 지식 상견(相見)한 후  
예를 갖추어 정중히 경배(敬拜)하고  
수암 강용범 선생 탁본한 지식(誌石)  
전해 받은 제일교포 제주강씨(濟州康氏)  
감개무량한 나머지  
단숨에 현해탄을 넘어와  
기쁨에 찬 눈물로 참배하고  
도·내외정성을 한데 모아  
강영 완백공(完伯公)<sup>9)</sup> 묘 치산(治山)할 때  
지식 묘안에 안치하고  
우람하고 품격있는 금계포란형  
유좌묘향(西坐卯向)<sup>10)</sup> 원(原)<sup>11)</sup>이어라.

㉕ 1937년 이후 역대 회장단과 임원들

평생을 다 하여도 다 못한  
쉬입없는 조상님 숭배 사업  
선인들이 남겨준 것은  
금화도 아니요 영화도 아닌  
한 마음으로 송조돈목(崇祖敦睦)<sup>12)</sup>  
제일교포 제주강씨의 피와 땀  
종친들이 슬기를 한데 모아  
조천서원상도사 창건한 명암선생<sup>13)</sup>  
위대한 오성(五聖)<sup>14)</sup>의 위패 봉안  
신천강씨 뿌리의 산실 성스러운 넋 쉽터  
자랑스런 성지  
선인(先人)들의 위업(偉業)이어라.

8) 강성익(康性益) : 호는 남주(南洲)이며 전라남도 의원과 제주도 초대민선 도지사를 역임하였고 제2대 제주도  
康 씨 종약장과 남주 학원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谷山人이며 17대손이다.

9) 완백공(完伯公) : 전라관찰사(감사)의 별칭

10) 유좌묘향(西坐卯向) : 정 동쪽을 향한 묘소의 좌향이다.

11) 원(原) : 묘(墓)를 한 등급 올려 원(原)이라 하고 원(原)을 한 등급 올리면릉(陵)이라 한다.

12) 송조돈목(崇祖敦睦) : 조상님을 숭상하고 종친 간에 정이 두텁고 화목함.

13) 명암선생(明菴先生) : 이름은 두환(斗煥)이요 자는 장진(長進)이며 호는 명암(明菴)이다. 유림계의 거두(巨頭)이며 한학자이고 신천강씨제주도종친회장으로서 조천서원을 창건한 신천인이며 17대 손이다.

14) 오성(五聖) : ① 덕성시조 관정대훈 공신 교화 성사 강후(康侯) 성조(聖祖) ②시조 성골장군 국조대왕 강호경(康虎景) 선조 ③중시조 고려문화시조 금자광록대부 신성부원군 충열공 강지연(康之淵) 선생 ④판도판사 정숙공 강윤휘(康允暉) 선생 ⑤입도조 원수(元帥) 자헌대부행 오도감사 강영(康永)영암선생 등 다섯 분을 말한다.

# 선인(先人)들의 위업(偉業)

정파 강정통  
靖坡康政統

## ㉔ 제주에 입도하신 할아버님

실전(失傳)된 묘소 찾으려고  
그 토록 찾아 헤매던 몇 백 년 간  
산신제를 지내던 영주산<sup>1)</sup> 정상  
세향을 올리던 배탄개<sup>2)</sup>의 제단  
선인들이 투철한 승조정신  
하늘도 감탄한 정성  
1929년 기사(己巳) 7월 보름 날  
신안(神眼) 김달원 지관(地官)이 안내로  
조천리 대봉림(大鳳林)<sup>3)</sup> 금계포란형(金鷄抱卵形)<sup>4)</sup> 진혈에  
영면(永眠)하고 계신 신천 강영 감사(信川康永監司)  
7년간 벌초하던 신천리 종인들  
믿업지 않았어라.

## ㉕ 39세손 法還人 康用範<sup>5)</sup>과 新川人 康丁生<sup>6)</sup>은

확실한 증표 찾기로 결심하고  
1937년 정축(丁丑) 음력 3월 초 3일  
방묘<sup>7)</sup>앞 제절을 파 헤치던 중  
큰 사각 벼루만한 지식 발굴  
물로 깨끗이 씻어보니  
앞면에 「신천강영감사(信川康永監司) · 임인은적어사(壬寅隱跡於斯)」  
뒷면에 「유삼자정복만(有三子禎福萬) · 유충의청과지(有忠義靑坡志)」 라  
새겨진 글귀를 보는 순간  
두 사람은 한 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 거두고  
묘전에 헌작하여 복배(伏拜) 또 복배한 후  
조천리 대봉림에서 서귀포로 달려가  
강성익(康性益)<sup>8)</sup>종인에게 보였어라.

1) 영주산(瀛洲山) :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산이다.

2) 배탄개: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해안가 포구를 말한다.

3) 대봉림(大鳳林):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속칭 봉소동의 원시림지대를 말한다.

4) 금계포란형(金鷄抱卵形): 금 닭이 많은 알을 품고 있는 지형으로서 일월성신(日月星辰)이 고루 비추는 명승지의 지세(地勢)를 말한다.

5) 강용범(康用範) : 호는 수암(修菴)이며 서예가이고 한학자로서 많은 수재자를 길러낸 교육자일 뿐 아니라 서귀포시 법환리에서 탄생한 信川人이며 18대손이다.

6) 강정생(康丁生) : 호는 양암(陽庵)이며 성산면 의회 의장을 역임한 정치가일 뿐 아니라 성산면 신천리에서 탄생한 谷山人이며 18대손이다.

7) 방묘(方墓) : 직사각형 모양인 묘소를 말한다.